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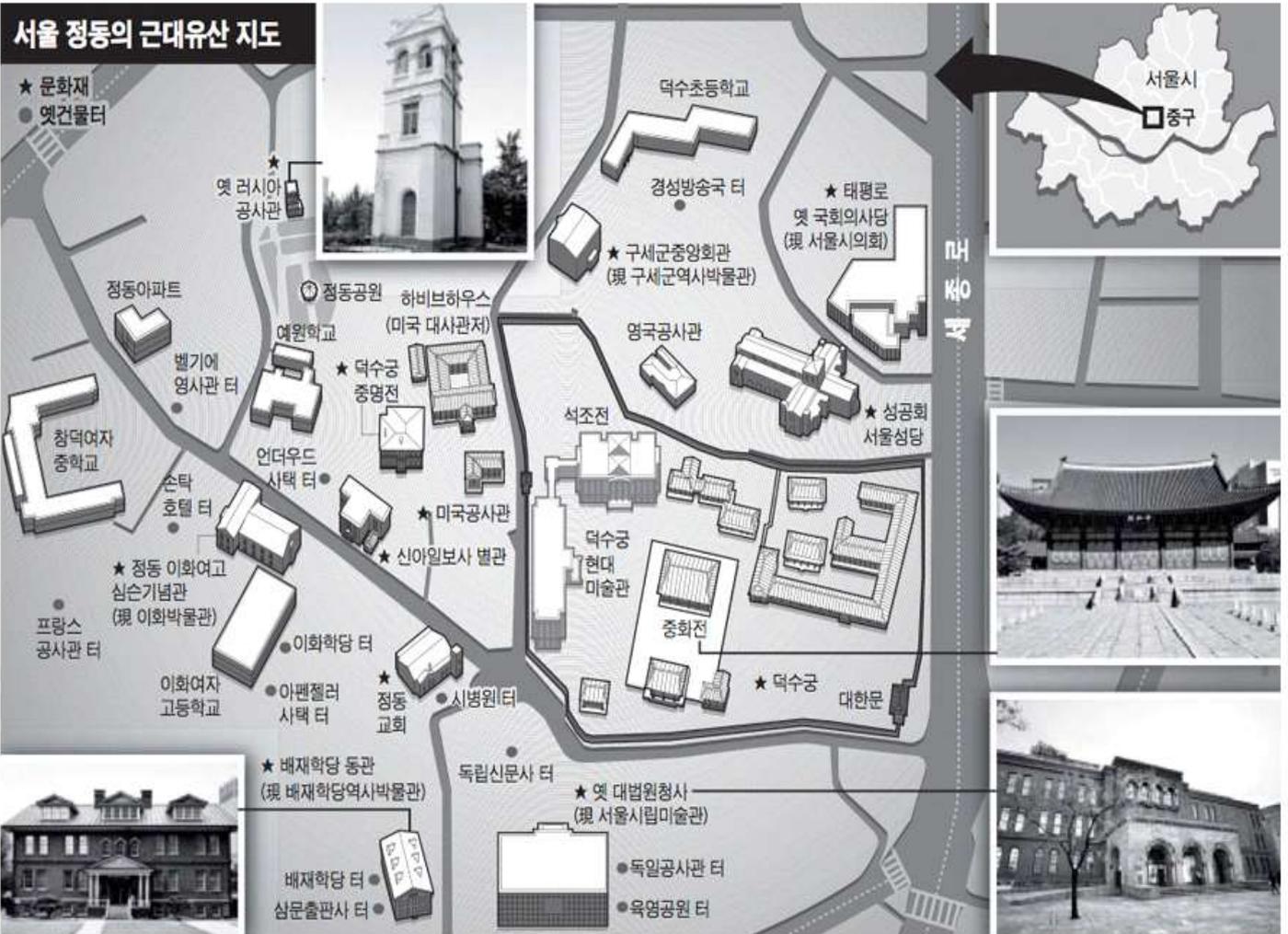
# 미스 손탁 참고 자료

## 고종이 걷던 그 정동길을 더듬다

올해는 정동의 해

〈貞洞〉

“근대 문화유산 1번지 알리자” 아관파천 슬픔, 답사길로 복원 1900년 시대상 담은 전시도… 배재학당 등 역사가 숨쉬어



자료: 문화유산국민신탁. 그래픽= 김현국 기자 kal9080@chosun.com

### 정동지역 주요 공간 조성 역사 연표

- 1397 태조, 정동 일대에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 조성
- 1883 최초 서양 공관인 미국공사관 개설
- 1885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배재학당 개교
- 이화학당 개교.
- 1886 육영공원 조성(現 서울시립미술관 자리)

- 1890 러시아공사관 지음(現 경향신문사 옆) 독일영사관 지음(現 서울시립미술관 인근)
- 1896 고종,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신(아관파천) 프랑스공사관 지음(現 창덕여중 일대) 독립신문 창간(現 신아빌딩 부근)
- 대한제국 선포
- 1897 최초의 근대식 개신교 건물 정동교회를 현위치에 신축
- 1900 경운궁 선원전 새롭게 조성(現 덕수초 건너편)

- 1902 경운궁 중화전 중층으로 지음 선교사 다니엘 기포드의 사택(現 이화100주년기념관 자리)을 매입해 손탁호텔 지음
- 벨기에영사관 지음(現 캐나다대사관 자리)
- 1905 경운궁 수옥헌(중명전)에서 을사늑약 강제 체결
- 1926 서울 성공회성당 지음
- 1976 한옥 미대사관저 하비브하우스 지음
- 2011 미 정부 소유 덕수궁 선원전터(옛 경기여고 터) 대한민국 정부로 돌아옴

# 정동 공사관의 길



# 손탁 호텔





MISS SONTAG HOTEL, SEUL, KOREA, JAPAN  
W. SONTAG, Eigentümer, H. A. SONTAG



Der kaiserliche koreanische Hausminister mit seinen Palastdamen,  
Frl. Sontag X und Frau Hauptmann Kroebel XX (die Verfasserin des Buches).

## 진고개 혼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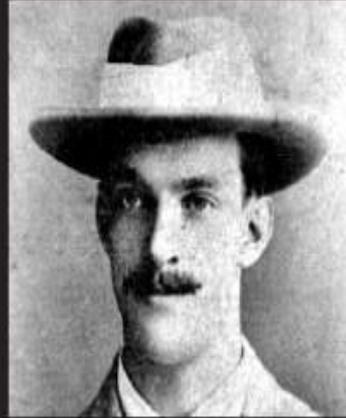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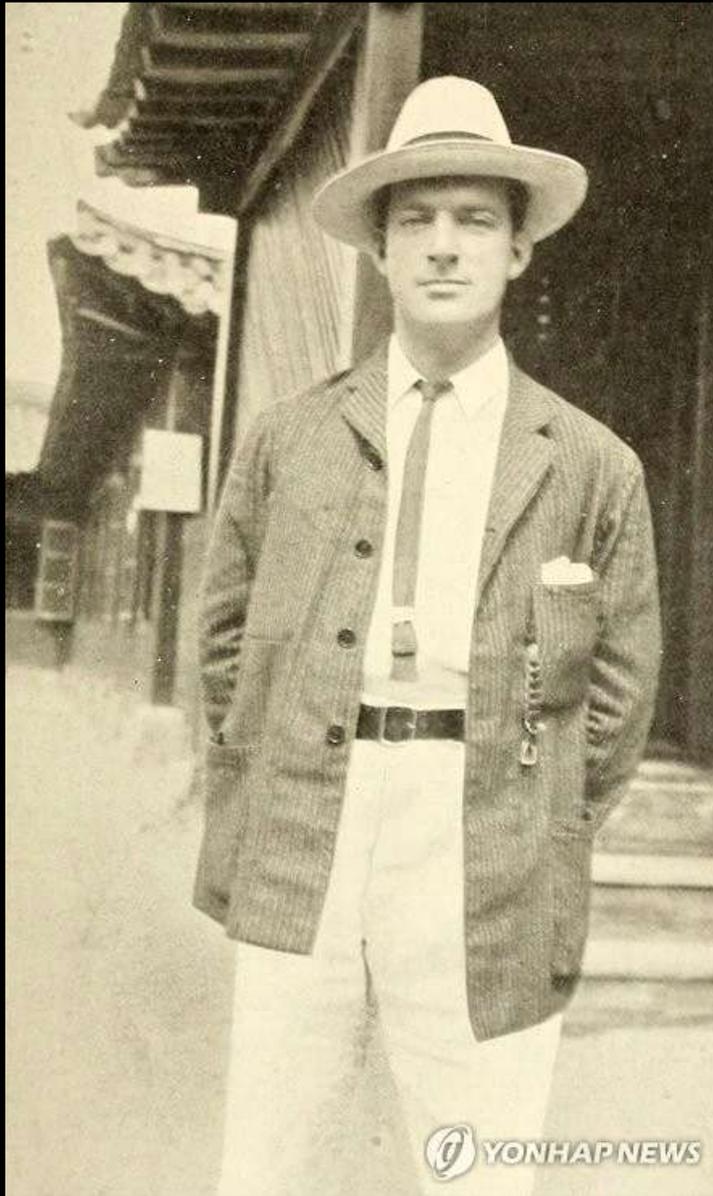


First street of Honmachi, Keijo

서울 중구 명동에 있었던 고개로, 옛 중국대사관 뒤편에서 세종호텔 뒷길까지 이어지는 고개길이었다. 지금은 충무로 2가로 불린다. 이 당시 남산 줄기는 지금의 충무로와 명동 일대에 언덕을 형성하고 있었고, 진고개는 그다지 높은 길은 아니었지만 흙이 워낙 질어서 통행이 불편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진고개는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는데, 1920년대에 일제가 서울을 개발하면서 이 일대를 변화가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진고개를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버렸고, 고개 자체는 그대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명칭은 한동안 그대로 남아 쓰였지만, 인근의 충무로나 명동 등의 명칭이 대세가 되면서 점차 사라져갔다. 지금은 인근 음식점의 상호명 등으로 남아 있는 정도이다.

# 대한매일신보 베델(배설)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하여  
대한 민족을 구하시오  
-배설



프랑스 공사관



전덕기 목사

# 손탁 여사

"덕국(德國:독일) 여인 손탁(孫澤)양은 내월 5일에 귀국할 터인 고로 지난 28일에 폐현하고 하직하였는데, 대황제 폐하께옵서 은으로 만든 술잔 제구를 하사하셨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9.8.31.)

손탁(Antoinette Sontag: 1854~1925)<왼쪽 사진 가운데>(주한 외교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판으로 대한제국 외교계의 막후 실력자로 군림했다. 손탁은 1885년 먼 인척인 초대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다. 베베르의 처남이 손탁의 제부였다. 손탁은 프랑스령이었던 알자스로렌에서 태어났지만, 1871년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고 알자스로렌 지방이 독일에 병합됨에 따라 국적이 독일로 바뀌었다. 독일 국적의 프랑스 여인이 주한 러시아공사의 인척 자격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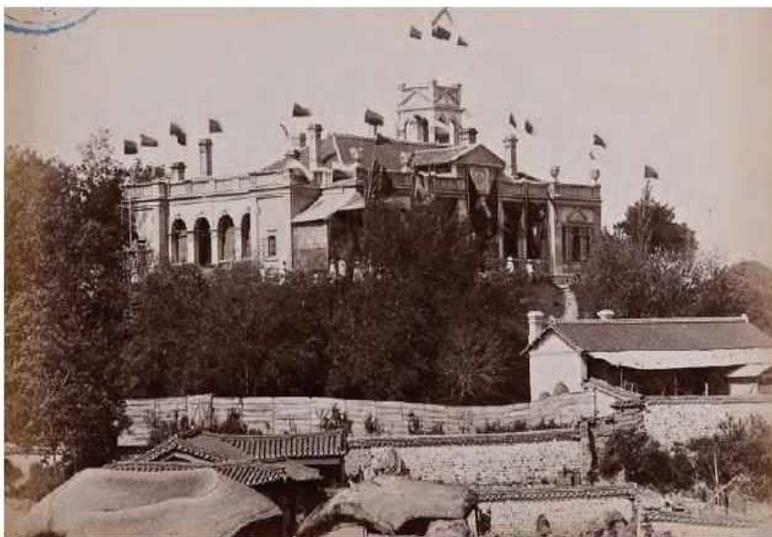
손탁은 베베르의 추천으로 궁내부에 들어가 외국인 접대 업무를 맡았다. 손탁은 미모와 교양을 갖추었고, 영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가 능통했으며, 프랑스 요리 실력이 탁월했다. 궁내부에 채용된 손탁은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서양식 연회를 도맡았고, 고종이 경복궁에 건청궁을 건립할 때는 거실과 주방을 서양식으로 꾸미는 역할을 했다. 사교성이 뛰어난 데다 궁내부에 근무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늘어 고종과 명성황후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당시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서양 요리였던 손탁의 프랑스 요리는 한국에 체류하던 서양인뿐만 아니라 고종과 명성황후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손탁은 한국 정부와 러시아공사관 사이의 중개자로서 제2차 한러밀약(1886)과 아관파천(1896)에도 개입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독살 공포에 시달리던 고종은 한식 수라상을 멀리하고, 손탁이 만든 서양 요리를 주로 먹었다. 러일전쟁 전까지 손탁은 사실상 고종의 전속 요리사였다.

고종은 1895년 손탁에게 정동에 있는 저택(대지 1184평)을 하사했다. 손탁의 저택은 서양 외교관들과 친미·친러파 정치가들의 회합 장소로 애용되었고, 서양인을 위한 식당 겸 호텔로도 사용되었다. 당시 서울에 호텔이라곤 일본인 전용의 파성관(巴城館)뿐이었다. 1902년 손탁은 궁내부로부터 건축자금을 지원받아 고종에게 하사받은 저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2층 양옥을 신축해 손탁호텔<오른쪽 사진>을 개업했다. 육실 딸린 객실 25실을 갖춘 서울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호텔은 궁중에서 사용되는 최고급 비품들로 꾸며졌고, 한국 정부의 영빈관으로도 이용되었다. 을사늑약을 체결하려 방한한 이토 히로부미도 이 호텔에 투숙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러시아공사관이 폐쇄되면서 손탁은 더 이상 한국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1909년 9월 손탁은 호텔을 프랑스인 보에르(J. Boher)에게 양도한 후 25년간의 한국 생활을 청산하고 프랑스로 귀국했다. 궁내부는 손탁에게 그 동안 한국 정부를 위해 봉사한 대가로 3년치 급료 3만환을 은사금으로 지급했다. 손탁호텔은 1917년 이화학당에 매각되었고, 이화학당은 1922년 손탁호텔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프레이 홀(Frey Hall)을 신축했다. 프레이 홀이 1975년 화재로 소실된 뒤에는 그곳에 이화 100주년 기념관(2004년)이 들어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5/201007050184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5/2010070501844.html)



러시아 공사관 과거 모습



러시아 공사관의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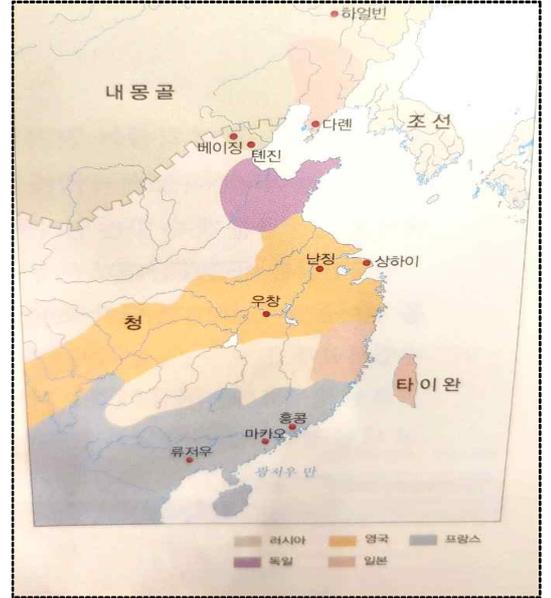
# 19세기 제국주의

## (동아시아를 침략한 제국주의)

우리가 흔히 쓰는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다. 일본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는 국가를 제국주의 국가라 하는데, 19세기 후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등이 그에 해당한다.

자국의 산업화를 이룬 제국주의 국가들은 값싼 원료를 사들이고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내다 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침략하였다.

그들은 이 지역 나라들에게 불평등한 무역을 강요하는 한편, 조차지(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준 일부분의 영토.) 라는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땅을 빌려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땅으로 설정한 뒤, 그곳에 자본 투자와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주둔시켰다. 또한 자기들끼리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 지역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세력 범위를 정하기도 하였다.



위의 지도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조선과 중국을 분할 점령한 모습을 보여 준다.

연해주를 차지한 뒤 만주와 한반도를 향해 침략의 손길을 내뻐던 러시아가 조선을 거쳐 중국을 침략하려던 일본과 대립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던 영국은 양쯔 강 유역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면 일본을 돕겠다는 내용의 영·일 동맹을 일본과 맺었다.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일본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일본의 대륙 침략을 지지하겠다고 나섰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전쟁 비용 60% 정도를 부담하면서 일본을 지원하였고,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의 조선 지배를 후원하였다.

### 자본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산업 혁명을 완수한 서양 여러 나라는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아시아 여러 지역을 침략하였다. 1842년에는 중국이, 1854년에는 일본이, 1862년에는 베트남이 개항하였다. 각각 영국, 미국, 프랑스에 의해 강제 개방당한 것이다. 당시 아시아 국가들은 서양 열강으로부터 대단히 불리한 내용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당하였다.



## 문을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 전환기를 맞은 조선 왕조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부른다. 유일하게 살아서 대원군의 지위를 누린 사람이 바로 **흥선 대원군** 이하응이다. 이하응은 아들이 조선 제26대 왕 고종으로 즉위한 1863년 12월 이후 10여 년간 사실상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

이 시기는 서구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는 때였다. 유교 이념을 실천하려는 조선에 서양의 사상과 종교 문물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은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병인박해 1866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함) '위정척사'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한편, 천주교도가 외세와 손잡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

### 병인양요(1866)

1866년 8월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략하였다. (병인양요) 조선이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한 사실을 침략의 빌미로 삼았다. 프랑스 함대는 강화도를 점령하고 조선의 사과와 통상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고,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다.

그러나 박규수와 같은 학자들은 서양의 우수함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규수는 서양을 물리칠 지혜를 서양에서 빌리자며 서양과 국교를 맺는 것도 고려하자고 하였다.

### 신미양요(1871)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5년 전 미국 상선 한 척이 대동강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불탄 사건(제너럴 셔먼 호 사건 1866)을 구실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침략한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맞서 싸웠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원군은 강경한 척사 정책을 다시 다짐하였다.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해야 하는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다."라고 쓴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웠다. 여러 차례 일본이 국교 수립을 요청해 왔으나, 이 또한 물리쳤다.

그러나 대원군에 대한 지지는 점차 줄어들었다. 척사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더 이상 대원군을 지지하지 않는 재야 유생들이 늘고, 대원군의 강경 정책이 외국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신문물을 받아들여 국력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늘었다.

1873년, 대원군은 결국 물러났다. 고종은 1881년 3월 말, 일본 시찰단을 파견한다.

### 강화도 조약(1876)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마지막 통신사를 파견한 지 65년 만에 일본과 국교를 회복한 것이었으며, 1868년 일본이 새정부를 수립하고 국교 맺기를 요청한 지 8년 만의 일이었다.

1875년, 일본은 조선이 반대하면 전쟁을 해서라도 개방시킨다는 생각으로 조선에 '운요 호'라는 군함을 파견하였다. 군사 충돌을 유도해 침략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1876년 1월,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에 나타난 일본은 조약을 맺지 않으려면 전쟁을 택하라고 위협하였다. 조선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군대를 앞세운 일본이 힘으로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다.

## 변화의 본격화 (1880년~)

1880년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변화는 본격화되었다. 1881년 (고종 18년)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서 5월 옛 오군영(五軍營)으로부터 몸이 튼튼한 80명의 지원자를 뽑아 무위영에 소속시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창설하였다. 훈련은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가 맡았다. 신식무기를 사용하여 훈련하였으며, 기존 구식군대에 비해 급료나 피복 등 모든 대우가 좋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왜별기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후 이러한 차별은 구식 군인들이 1882년 임오군란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 임오군란 (1882년)

정부가 재정 악화로 인해 구식 군인들에게 13개월째 급여를 주지 못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고 위협에 시달리던 군인들은 13개월 만에 한 달 치 급여를 쌀로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겨와 모래였다. 분노한 군인들은 부패한 관리들의 집을 파괴하는 한편,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 또, 개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궁궐을 점령하여 정부 관리들을 죽였다.

군인들이 궁궐을 장악하자, 고종은 흥선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요청하였다. 대원군은 군인들을 해산시키면서 부패한 관리를 찾아 벌주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개화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을 해체하고 조선의 개화 정책은 후진하게 된다. 그러나 일은 대원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청과 일본이 각각, 3,000명과 1,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청은 흥선 대원군을 임오군란의 책임자로 지목하여 청으로 납치하였으며, 군인 봉기의 주모자를 찾는다면 서 많은 서울 민중을 학살하였다.

##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들-왼쪽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시 청군에 의존했다. 마침내 청의 위안스카이가 청군 1,500여 명을 이끌고 개화당을 공격해 했다. 정세가 불리해지자 개화당을 돕겠다고 약속했던 일본군은 배신하고 철수했다.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려던 급진파의 꿈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흥영식과 사관생도들은 청군에게 살해당했으며, 김옥균은 일본으로, 서재필과 서광범은 일본을 거쳐 이후 미국으로 망명했다.

급진파는 빠른 개혁이 절실하다고 느꼈으면서도 부족한 힘을 같은 개화 세력인 온건파가 아니라 일본이란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채우려 하였다. 정변은 실패로 끝났고, 청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개혁 진영의 상당수가 관직에서 밀려났으며, 일보는 아예 반역죄로 처단되거나 일본으로 쫓겨 갔다.

1884년 가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파는 쫓기는 심정이었다. 청·일의 빠른 변화에 비하면, 조선의 변화는 너무도 더뎠다. 게다가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강해져 일본과 가까운 급진파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1884년 들어 국내외 정세가 개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청이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하여 청군의 일부가 조선에서 철수했기에, 세력이 약한 개화당은 일본 공사의 병력 지원을 약속받아 정변을 계획했다.

1884년 10월 17일, 급진파는 마침내 정변을 일으켜 고위 관리 여럿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새 정부를 구성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왕비 민씨를 비롯한 민씨 척족은 개화당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또다

##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의 삶

일본 정부는 김옥균이 더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1886년 태평양 가운데 있는 오가사와라 섬으로 강제 추방해, 김옥균은 사실상 유배된 신세가 되었다. 이 무렵 김옥균은 고종에게 편지를 보내 청군과 일본은 모두 신용할 수 없는 나라로 조선은 결코 이들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그는 대역죄인일 뿐이었다.

1888년 홋카이도의 삿포로에 연금되었다가 1890년에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1894년 일본에 실망한 김옥균은 청의 리홍장과 담판할 생각으로 상하이로 건너갔다. 그러나 조선에서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동화양행 객실에서 암살되었다. 이 일이 터지자 청은 김옥균의 시체를 조선 정부에 넘겨주었다. 김옥균의 시체는 양화진에서 능지처참된 후 효시되었다.

한편, 김옥균을 존경하던 한 일본인이 김옥균의 머리카락과 의복 일부를 가져와 일본 도쿄의 아오야마 외국인 묘지에 묻었다고 한다. 그 일부를 김옥균이 여섯 살까지 살았던 충남 아산 생가 터 근처로 옮겨 와 부인 유씨와 합장했다. 도쿄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비상한 때를 만나, 비상한 공도 없이 비상한 죽음만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 갑신정변 이후 조선의 상황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진다. 조선과 조약을 맺어 ‘조선은 청의 속방(속국)’이라고 명시한다. 갑신정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위안스카이는 왕비 민씨를 비롯한 민씨 척족을 견제하기 위해 청에 잡혀가 있던 흥선대원군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민씨 척족이 중심이 된 집권 세력은 또 다른 강대국과 손을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조선은 먼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했으나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청을 견제하려 했다.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는 베베르를 조선 공사로 파견해 조선에서 세력을 확대하려 했다. 이에 조선은 베베르 등과 접촉하여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는 밀약을 맺을 계획을 추진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청나라는 고종의 폐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조선을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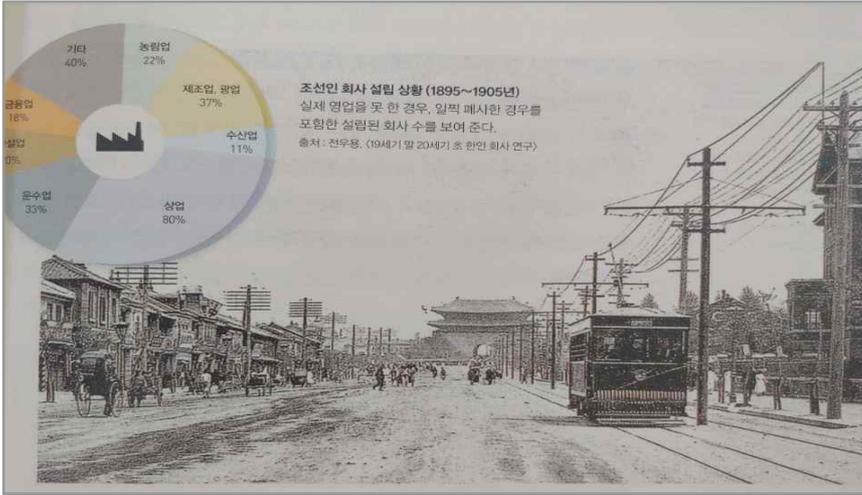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경계하는 나라가 또 있었다. 19세기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은 강력한 대륙 국가인 러시아가 조선을 바탕으로 해양 진출을 꾀하는 것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한다는 핑계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거문도 사건, 1885) 전라도 남쪽의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거문도는 제주도과 쓰시마 섬의 중간 지점에 있는 천연의 요새였다. 영국은 거문도를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군사 기지로 삼는 한편, 연료 정장소를 만들어 영국 함대의 거점 기지로 삼으려고 했다. 결국 청이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러시아가 조선의 영토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약속을 하자 2년 만에 거문도에서 철수했다.

## 새로운 학교의 설립 (1886년)

1886년 서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열었다. 모두 두 학급으로 한 반은 젊은 현직 관리들 중에서, 다른 한 반은 양반집 청년 중에서 학생을 뽑았다. 교사는 세 명이었는데 전혀 우리말을 모르는 미국인이었다. 영어와 수학, 과학, 지리 등 전에 없던 과목이 중심이었다. 교과서는 전부 영어로 쓰여 있었으며, 수업도 두 단계 통역을 거쳐 영어로만 진행되었다.





서울 남대문 앞 전차의 모습

### 동학농민혁명 (1894년)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의 수용과 각종 배상금 지불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여기에 탐관오리의 수탈이 더해지자 농민들은 참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청나라로 인해 조선에서의 입지가 줄어든 일본은 조선에 경제적으로 침투했다. 외국에서 들어온 신기한 물품과 근대의 산물을 조선에 팔고, 쌀과 콩 같은 농산물을 수입해갔다. 그 결과 많은 쌀이 일본으로 팔려 나가면서, 지주나 거래상 들은 큰 이익을 챙겼다. 그러나 쌀값이 오르고 식량이 부족해지자 도시 빈민과 가난한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방곡령을 선포하여 국내의 농산물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일본에 배상금만 지불하게 되었다. 조선의 농민들은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굶주림에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1893년, 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60여 차례 민란이 일어났다. 1894년에도 '민란이 없는 고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난이 일어나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동학이 자리 잡았다. 동학을 받드는 이들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그래서 평등하다고 믿었다. 또한, 조선 왕조의 운수가 다 했으니 새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1860년에 경주에서 창시된 동학은 1880년대에는 충청도로, 1890년대에는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변화가 꼭 필요했을 정도로 사회가 혼란하였고, 세상이 바뀌기를 절실하게 소망한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1892년 무렵에는 변혁의 필요성을 느낀 지식인들이 동학에 감가하였다. 새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민중과 변혁을 추구하는 지식인이 이렇게 동학을 매개로 만났다.

1894년 11월, 농민군은 공주로 모여들었다. 농민군은 일본군과 정부군에 맞서 장렬하게 싸웠으나 끝내 승리하지 못하였다. 수많은 농민군이 싸우다 죽거나 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그해 12월에 전봉준이 체포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남해안으로 쫓겨 갔던 농민군마저 모두 제압당하였다.

### 청일 전쟁 (1894년 7월 25일~1895년 4월)

1894년 4월 27일,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였다. 이날 정부는 청에 군대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를 주도한 사람은 왕비의 친척이자 정권의 실세인 민영준이었다. 그는 '미친 벌 때와 궁한 개'같이 몰려드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조선 정부는 청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다. 5월 4일, 청은 "속방의 왕조 체제를 지켜 주겠다."며 파병을 통보하였고, 이튿날 아산만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조선을 손에 넣기 위해 이전부터 청과 전쟁을 벌이려고 계획한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에 나섰다. 청보다 많은 군대를 파견해 인천에 상륙시킨 뒤, 곧바로 농민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서울로 이동시켰다. 그리하여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까지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전쟁일 벌인다. 전쟁터가 된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이 전쟁을 계기로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켜 조선을 지배하려 들었다.

## 갑오개혁(1894년 ~ 1895년)

10년 전 갑신정변의 실패 후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위세를 업고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이다.

텐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침투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드러내자 조선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새로 신설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일본은 경북궁을 점령하고 김홍집을 앞세워 새 내각을 세운 후 교정청을 해체하고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추진된 개혁은 봉건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선 사회 내부의 개혁적 요구를 반영해 신분제를 철폐하는 등 근대적 제도 개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의 위세에 의존한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된 근본적 한계 때문에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군사개혁에 소홀히 하는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청의 랴오둥(요동)반도를 할양받았다. 그러자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랴오둥반도를 청에 돌려주게 하였다.(1895년)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조선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왕실은 친러파 인사들을 등용하고, 반일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살해하였다. 이에 신변의 불안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러시아의 위세를 등에 업은 세력이 득세하였고, 김홍집 등 갑오개혁 중심인물들이 백성들에게 살해되거나 일본으로 도주 또는 망명하여 근대 국가 수립이라는 개혁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 을미사변(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乙未事變)은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경북궁(景福宮)에서 명성황후 민씨가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 수비대 미야모토 다케타로(宮本竹太郎) 등에게 암살된 사건이다. 일본의 작전 암호명은 '여우사냥'이었다.

### 개요

일본 제국은 조선을 침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려 했고, 조선 측에서도 흥선대원군, 우범선, 이두항, 이진호, 전 군부협판 이주희, 개화파 문신 유길준, 친일파 송병준의 사위 구연수 등 다양한 계층의 조선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통, 협조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일본인 낭인들은 조선인 군관들의 비호와 길안내로 경북궁까지 3~5시간 내에 진입했다. 기습적으로 경북궁에 진입한 이들은 궁녀 복장으로 위장한 황후를 찾아내 시해한 뒤, 미우라의 지시로 시신에 석유를 뿌려 소각한 뒤 연못에 던졌다.

사후 100년 넘는 동안 일본은 조선의 분쟁에 일본 낭인들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을미사변 사건 두 달 뒤에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쓰지가 작성하고 일왕이 결재한 보고서가 2005년 공개되었다.

일본은 기록을 조작하여 황후 시해 책임을 흥선대원군과 조선인 훈련대에게 돌리려 했지만, 범인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서양 각국에 알려졌다. 사건의 범행자들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목격자인 궁녀, 환관, 태자 이척 등이 증언한다. 또한 러시아인 건축기사였던 아파나시 세레딘사바틴, 시위대 지휘관이었던 미국인 다이(W. M. Dye) 대령이 현장을 목격하였다.

러시아인 건축기사 사바틴이 고종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궁전 뜰에서 일본인의 행패를 목격했다. 시위대 교관이던 미국인 다이(Dye)도 시위대를 지휘하면서 궁 안에서 이 참상을 목격했다. 사바틴과 다이는 둘 다 일본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뒷날 일본인들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증언을 하였다.

법부 협판 권재형의 보고서(흔히 <권재형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은 흉도들의 주의를 따돌려 명성황후의 피신을 돕기 위해 밀실의 뒷문을 모두 열고 흉도들이 잘 보이는 방 문앞에 나와 서 있었는데, 흉도들은 칼날을 휘두르며 그 방에 들어가 고종의 어깨와 팔을 끌고 다니기도 하고, 고종 옆에서 권총을 쏘고 궁녀들을 난타하며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또한 무단 침입을 꾸짖는 고종의 어깨에 무례하게 손을 얹어 주저앉혔으며, 태자도 다른 방에서 붙잡혀 머리채를 휘둘리고 관이 벗겨지고 칼등으로 목줄기를 얻어맞는 수모를 당했다.

## 명성황후 살해 과정

흉도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명성황후의 처소를 대라고 욕박지르는 등 난폭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궁녀들은 두들겨 맞고 내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건청궁 동쪽 곤녕합 옥호루에서 황후를 찾아냈는데, 궁내부 대신 이경직이 두 팔을 벌려 황후 앞(또는 황후가 있는 방문 앞)을 가로막고 나서다가 권총을 맞고 쓰러졌으며, 이어 신문기자 히라야마 이와히코(平山岩彦)가 다시 칼로 두 팔을 베었다. 그러나 버둥대며 일행을 방해하던 이경직은 낭인들에 의해 허리가 베여 죽게 된다.

곤녕합에 진입한 낭인과 조선인 협력자들은 궁녀와 상궁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누가 왕후인지 색출하던 중 변복한 왕후를 찾아내자 살해한다. 낭인들은 궁녀들 사이에 숨었다가 도망치는 명성황후를 쫓아가 그녀를 마룻바닥에 넘어뜨려 내동댕이친 뒤 구둣발로 짓밟고 여러 명이 칼로 찔렀다. <에조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군인들은 황후를 죽이기에 앞서 능욕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낭인들은 남의 나라 국모를 무참하게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커녕 일본을 위해 충성한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 사후 처리

을미사변이 일어난 10월 8일 아침에 고종은 아침 건청궁 장안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종이 8시경 미우라 공사에게 사자를 급히 보내 어젯밤 일의 내막을 묻자 미우라는 서기관 스기무라와 통역관을 데리고 궁으로 들어왔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사도 소식을 듣고 궁으로 왔다. 미우라와 스기무라, 그리고 자객의 우두머리가 옆에 섰으며, 흥선대원군도 들어와 고종 옆에 앉았다. 미우라는 고종을 협박하여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켰다.

## 증거 인멸

김홍집 등이 연락을 받고 궁으로 들어올 때 미우라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황후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오기하라에게 급히 화장하라고 지시했다. -[45][46]

흉도들은 황후의 시신을 문짝 위에 얹어 이불을 덮고 건청궁 동쪽 녹원(鹿園) 숲 속으로 가져간 다음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태웠다. 날이 밝은 뒤 타다 남은 유골을 궁궐을 순시하던 우범선이 우연히 발견하여 연못 향원정에 넣으려고 했으나, 훈련대 참위 윤석우(尹錫禹)가 혹시 황후의 시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를 수습하여 멀리 떨어진 오운각 서봉(西峰) 밑에 매장했다. 뒷날 친일 내각은 윤석우를 비롯한 군부 협판 이주희, 일본어 통역관 박선(朴銑) 등을 무고하게 반역죄 또는 불경죄로 사형에 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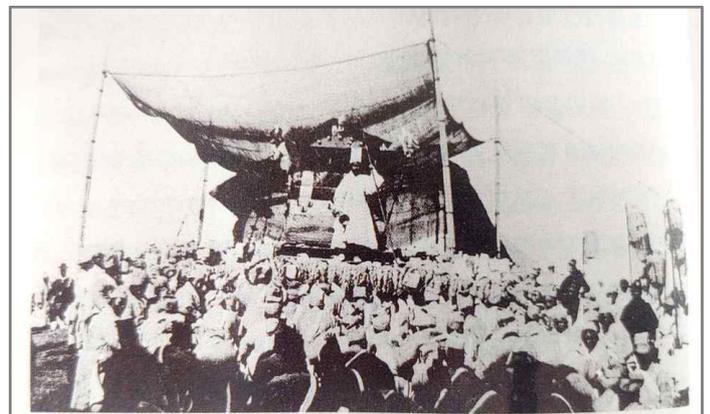
## 사건 이후

이 사건은 당초 그들의 계획과 기대, 즉 민비를 제거하여 일본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적 비난과 압력은 물론 조선의 반일운동을 유발시켰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지배의 정략이 도리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열강의 견제로 일본세는 더 이상 조선에서 받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사건 이후 명성황후가 복권되면서 조선인 가담자인 박선, 이주희는 처형당하고, 우범선, 이두황, 이진호는 일본으로 망명했다. 우범선은 뒤에 일본으로 찾아간 자객 고영근에게 암살되었다. 구연수는 한일 합방 이후에 복권됐다.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 암살에 관여된 것을 알게 된 고종은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 빈소에 찾아가지 않았다.

## 장례 논란

명성황후에 대한 장례는 사후 2년이 지나 1897년에 비로소 진행되었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직후인 1897년 11월 22일 명성황후의 유해는 청량리 흥릉에 안장되었다. 명성황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유해를 수습할 때 뼈에 재와 모래가 뒤섞여 신체 부위가 판명되지 않아 고양군에 사는 환관을 불러 그의 말을 들으면서 석회를 바르고 비단옷을 수습 벌 입혀 구부리고 포개고 묶어서 관에 넣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궁내관 정만조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명성황후 장례 모습

일본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아관파천 및 대한제국 성립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1897년 10월 12일 고종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환구단에 나아가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고, 낮 12시에 왕후를 “명성황후”로 책봉·추존하였다. 이튿날인 10월 13일 아침 황제는 황후의 빈전에 제사를 드리고, 오전 8시에 태극전에 나아가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반포하였다.

###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관계 악화

고종은 사건의 배후의 한 사람으로 흥선대원군이라 봤다. 1898년 흥선대원군이 죽었을 때 아들 고종이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부자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흥선대원군이 죽자 한성부에서는 7일장을 했으나, 고종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종은 그의 장례식 참석을 거부했고, 흥친왕 이재면은 혹시나 자신도 죽임당할까봐 대원군의 부음을 알리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주저했다. 그러나 상여가 노제를 한 뒤 서문(西門)으로 나갈 때 고종은 마루에 서서 담 넘어로 바라보며 오랫동안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 통곡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한다. 상여가 공덕리로 가는 것을 보고 서대문 밖까지도 쫓아갔다고도 한다.

### 아관파천(1896년 2월 11일~1897년 2월 20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은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1년간 조선 고종과 세자가 경복궁을 떠나,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거처한 사건이다. 러시아에서는 이 사건을 고종 러시아공관 망명이라고 불렀다.

1864년 조선 고종 1년 이후 러시아 제국을 한자로 ‘아라사’(俄羅斯)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하였다.[1] 따라서 ‘아관’(俄館)이란 러시아 대사관을 뜻한다.

### 진행

1895년 을미사변으로 조선 국민의 대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하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전국이 소란해

지자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공사관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병(水兵) 백명을 서울로 데려왔다. 이에 친러파인 이범진 등은 베베르와 공모하여 건양 1년(1896년) 2월 11일에 국왕의 거처를 궁궐로부터 정동(貞洞)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고종은 옮긴 당일 내각총리대신 김홍집을 비롯한 친일 관리를 면직하고, 유길준 등을 체포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김병시를 내각총리대신에 명하는 등 내각 인사를 새로 하였다. 이날 김홍집과 정병하가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 어윤중 또한 살해되었고, 유길준·조희연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이범진·이완용 등의 친러 내각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은 1896년 5월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 이후에 일본 제국과 가까워지며, 야마가타-로바노프 협정을 맺는다. 또한 러시아 제국은 경원과 경성의 채굴권과 압록강, 두만강 및 울릉도의 채벌권과 같은 각종 이권을 요구하였다. 이에 1897년 2월 18일, 궁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고종은 이를 뒤인 2월 20일에 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이때, 고종이 다른 나라의 공관에 피신하여 다른 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조선의 자주권이 심하게 훼손된다. 그리고 그 이후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지게 된다.

### 평가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긴 후에 왕은 비로소 군주권을 회복한다. 이전까진 일본이 일본식 제대로 내각이라는 것을 만들어 친일적 인사를 총리대신이 되도록 하여 그가 일본공사관의 지시를 받아 국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왕은 1년 동안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면서 빼앗겼던 군주권을 회복하고 왕정을 원상으로 돌렸다. 그리고 나라를 한 등급 승격시켜 제국으로서 재출발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황제는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근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아관파천에 대해서는 일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그의 의도를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자주적이지 못한 외세 지향의 행동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 러일 전쟁(1904년 2월 8일~1905년 가을)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계속된 전쟁으로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무력 충돌이었다. 러일 전쟁의 주요 무대는 만주 남부, 특히 요동 반도와 한반도 근해였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제국이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부동항으로, 여름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여순 항(당시는 Port Arthur)은 연중 사용할 수 있었다. 청일 전쟁 이후인 1903년 8월에 진행되기 시작한 차르 정부와 일본 간 협상에서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한반도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북위 39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일본으로 하는 분할 통치안을 역제안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일본은 1904년 협상 결렬 후 러시아가 향후 전략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전쟁을 선택하였다.

## 헤이그 특사 사건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 特使 事件, 문화어: 헤그 밀사 사건)은 1907년 고종이 당시 개신교 감리교회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과 이들을 도울 호머 헐버트를 파견하였던 사건이다.



### 배경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하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에 반하여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 하고자했다. 헤이그특사는 만국 평화 회의에 을사늑약이 불평등조약임을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다

###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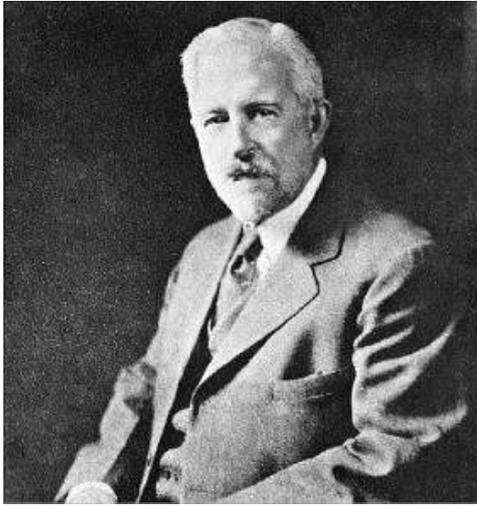
고종은 1907년 4월 전 평리원 검사 이준에게 신임장파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어 만국평화회의(정식 명칭은 헤이그 회담)에 나가 자주권을 침해받는 대한제국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리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미 행정권한을 잃은 대한제국은 친서를 전하였으나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이동할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준과 김구는 상동감리교회의 담임이었던 전덕기 목사를 찾아가 비밀리에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획을 세우고, 특사의 이동 경로와 이동 경비와 활동 자금 마련을 시작하였다. 당시 서울 중심지에 있던 상동감리교회 교인을 주축으로 주변 종로 시장과 승례문 주변 시장 상인들이 경비를 모으고, 당시 감리교회 목사였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를 포함하여 다른 선교사들과 상동감리교회의 지원을 합쳐 활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특히 헐버트 선교사는 특사에 대한 해외활동 지원과 일본에 대한 교란책을 활용하여 제4의 특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후 이준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을 만나 차석보의 아들과 함께 5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다. 6월 4일, 그들은 시베리아를 거쳐 당시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서 전 러시아 공사관 참서관 이위종과 합류한다. 6월 15일,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되었다. 6월 19일, 그들은 베를린에서 각국의 수석 대표에게 보내는 주장문(항고사라고 불렀음)을 인쇄한다. 6월 25일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헤이그에 도착했다.

또한 고종은 감리교회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 목사에게 헤이그 밀사 파견에 적극 지원하도록 밀사활동을 밀명을 통해 부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헐버트는 다른 감리교회 선교사와 함께 일본제국의 감시망을 피해 헤이그 특사가 무사히 헤이그에 도착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제국이 대한제국 대표의 만국 평화 회의 참석을 방해 할 것을 직감한 호머 헐버트는 스위스 프랑스를 경유하면서 한국 대표들이 회의 참석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방 언론사들과 접촉하도록 지원했다.

6월 28일, 밀사는 "항고사"와 함께 문서를 일본을 제외한 회의 참가국위원회에 보낸다. 같은 날짜의 비공식 회의보 《Courrier de la Conférence》 지에 "항고사"가 게재된다. 다음 날인 6월 29일 밀사는 회의를 주재한 러시아 제국 수석 대표 넬리도프 백작(Aleksandr I.Nelidov)을 방문하지만, 면회를 거절당한다. 6월 30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머 헐버트 목사

대표를 찾아 가지만 지원을 거부당한다. 7월 1일 회의 개최국인 네덜란드 외무 장관의 면회를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이 시점에서 밀사의 존재는 그들이 접촉한 열강 측에서 일본 측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제국과 대영제국 등의 방해와 같은 제국들인 서구의 방관으로 대한제국 대표들은 회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당하고 말았다.

호머 헐버트 목사는 헤이그에서 미국 언론인 윌리엄 T. 스테드와 처음 접촉하였다. 7월 8일, 그의 주선으로 한국 대표들은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주의재단>(Foundation for Internationalism) 집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위종은 유창한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 실력으로 대한제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하는 《대한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제목의 이위종의 프랑스어 강연 외에 역시 스테드의 알선으로 미국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윤용구와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 박사가 영어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강연을 했다. 이들의 연설 내용은 세계 각국 언론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대한제국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뿐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7월 9일,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1면에 《대한

조치 단행할 시기-헤이그 한인의 괴운동》이란 제목으로 일본 정부와 이토 히로부미에게 엄격한 대응을 촉구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7월 12일, 이위종이 상트페테부르크로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7월 13일, 이 날 타카이시 기사가 타전한 기사에서 이준이 얼굴에 악성 종기가 나서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7월 14일 저녁, 투숙해 있던 드용 호텔에서 이준이 사망했다. 이틀 뒤인 7월 16일 이준을 가매장에 동반했던 이상설과 호텔의 주인이 참례를 했다. 7월 18일 이위종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헤이그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9일, 이상설과 이위종이 런던으로 출발하기 위해 헤이그를 떠났다. 그 후 뉴욕으로 향했고, 이날 헐버트가 뉴욕에 도착했다.

9월 6일, 이준의 장례식이 열렸고, 이준의 동생과 대한제국의 외교관, 친구, 헤이그 YMCA 회장 등이 참석을 했다. 10월 18일, 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폐회되었다.

이준의 죽음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화병에 의한 분사설’, ‘단독 감염설’(일본 정보문서 기록), ‘자살설’, ‘독살설’, 등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이준이 할복 자살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집필이었던 양기탁이 신채호·베델과 함께 민족의 공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허구 기사였다.

## 결과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이어 순종이 즉위하고 4일 후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었다.

## 덕수궁 (경운궁)



덕수궁 전경

덕수궁(德壽宮)은 서울 중구 정동(貞洞)에 있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궁궐로서, 대한민국의 사적 제124호이며 면적은 63,069m<sup>2</sup>이다. 원래의 면적은 현재보다 넓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축소되었다.

본래 이름은 경운궁(慶運宮)이다. 조선 초기 세조가 남편을 잃고 궁궐을 떠나는 말며느리 수빈 한씨(인수대비)를 가엽게 여겨 개인 사저로 마련해주었고, 이후 한씨의 차남 자산군이 보위에 오르게 되어 궁궐에 들어가자 장남인 월산대군이 물려받았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가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로 왕의 거처로 쓰면서 궁이 되었다. 1608년 선조가 죽은 뒤 광해군이 이곳에서 즉위하였는데, 그해 완성된 창덕궁으로 떠나면서 경운궁이라는 궁호

를 붙여주었다. 1623년에는 인조가 이곳에서 즉위하였다. 또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곳이기도 하다. 1897년(고종 34)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 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비로소 궁궐다운 장대한 전각들을 갖추게 되었다. 1904년 큰 화재로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1905년 즉조당(卽祚堂)·석어당(昔御堂)·경효전(景孝殿)·함녕전(咸寧殿) 등이 중건되었다. 1906년 대안문(大安門)이 수리된 뒤 대한문(大漢門)으로 개칭하고 정문으로 삼았다. 1907년(순종 1) 순종 즉위 후 궁호가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개명되었다.[1] 1611년 ~ 1615년에는 조선의 정궁, 1897년 ~ 1907년에는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다.